



내 집을 활용한 행복 노후설계 솔루션 주택연금

올 2월 한 언론에서 경기도 대도시 중 성남시가 첫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부천, 고양, 용인이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양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유엔이 정한 14%에 육박한다는 기사였다. 요즘 고양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노인 정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글. 김병민(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장)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기존의 가족중심 책임의식에서 사회 또는 노년층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노년층 스스로가 노후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주택연금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

노년층이 노후설계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즉시연금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풍족한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때 집 한 채 소유한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설계가 더욱 쉬워진다. 주택연금이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부부 모두 사망 시 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모가 받은 연금 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상속 자녀들이 상환할 의무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기 가입비용 부담도 낮추고 배우자에 대한 연금 수급권도 보장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고양시 노인 가구의 주택연금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북부지사(지사장 김병민)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노인 4,028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당당한 노후를 설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은 2인 가구 노후 적정생활비 월 268만 원(2020년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41%에 해당하는 평균 112만4천 원이다. 주택 상속에 대한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의 주택연금 가입 당시 연령은 만 52세부터 98세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후행복을 위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노후생활은 적어도 3가지의 '엮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

- 첫째, '금전으로부터의 자유'이고,
- 둘째, '자식으로부터의 자유'이며,
- 셋째, '욕망과 기대로부터의 자유'이다."

위의 글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 느낀 내용을 작성한 체험수기의 일부이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자녀가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했듯이, 이제는 노년층이 된 부모세대가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새로운 은빛 찬란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

